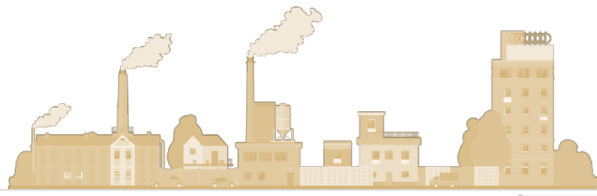


## 어두운 산업혁명을 그린 영국 화가 Lowry (3)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 이준희



18세기 증기기관과 방적기의 발명을 앞세운 산업혁명의 성공과 수많은 식민지 건설을 통한 시장의 확보는 영국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었다. 이러한 호시절은 영원할 것 같았으나, 그 이면에는 산업혁명의 후발주자들인 독일과 프랑스의 추격으로 인한 긴장감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문제, 아동 노동 문제 등을 비롯한 내재적인 문제들이 움트고 있었다.<sup>1)</sup>

라우리(Laurence Stephen Lowry, 1887-1976)는 이런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당시 영국의 도시 곳곳을 흔하게 채우고 있던 공장과 굴뚝, 회색빛 하늘, 혼잡한 길거리와 같은 도시의 맨 얼굴을 화폭에 옮겨 담은 영국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그는 운 좋게도 생전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려 42년간이나 집세 수입원으로 일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도 그러한 명성을 얻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그의 그림 실력을 두고 '일요화가(Sunday painter)'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독특한 소재와 채색 방법은 그를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로 만들어주었으며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서는 정식 기록 화가로서 대관식의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다.



Our Town (1941), Oil paint on canvas, 43 x 62(cm)

그러나 생전의 엄청난 명성에도 불구하고 ‘고독하지 않았다면 한 장도 그리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스스로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라우리는 평생 고독했다. 라우리는 외동아들이었으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는커녕 어릴 때부터 냉대받았다. 어머니는 늘 그에게 ‘네가 딸이 아니어서 나와 네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곤 했다.<sup>2)</sup> 라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어머니로부터 보답 받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굶어가면서도 늘 어머니의 인정을 갈구하는 아들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어머니에게만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일생동안 반복했다고 한다. 이렇게 결핍된 애정은 라우리로 하여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고독 속에 머무르게 했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여자’도 허락하지 않았다.<sup>3)</sup>

라우리가 산업화의 풍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0대에 접어든 어느 날, 본인이 자란 펜들베리(Pendlebury)라는 영국의 한 공업 도시에서 기차를 놓치게 되는 경험 이후부터이다.<sup>4)</sup> 그 때 라우리는 승강장 주변의 잿빛 스모그에 둘러싸인 거대한 공장 건물들은 빛을 받아 반짝이고, 공장 노동자들이 길 위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늘 보던 풍경 속에서 새로운 매력을 느꼈다. 그 이후로 그는 영국



의 대도시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공장과 노동자들, 굴뚝이 가득찬 거리를 화폭에 그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산업화된 풍경을 그리는 데 라우리의 깊은, 내재적 고독감은 작품에 특유의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했다. 라우리가 그린 그림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1941년 Our Town으로 이 그림은 1931년 발표했던 A Town Square를 재작업하여 채색한 그림이다. 10년 만에 다시 재창조한 이 그림에서 라우리는 기존에 그려졌던 건물들 뒤로 작고, 어렴풋하지만 정교한 도시의 윤곽을 그려 넣었는데 이를 통해서 군중들을 광장 안으로 몰아넣어 가두는 느낌을 더하여 더 차가운 고독 속에 놓이게 했다.

그의 작품 속 고독이 화가 본인도 눈치채지 못할 무의식 저편의 것이었든, 아니면 단순히 의도치 않은 결과였든 상관없이 라우리는 그 고독감을 직접적으로 들이밀지 않고 색채로 다듬어서 전달한다. 밝은색으로 채색된 건물이나 사람들을 사용하여 고독을 단순히 춥고, 쓸쓸한 느낌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마치 번영과 쇠락이 공존하던 사회 모습을 반영하듯 위 그림에서도 도시의 차가움부터 개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희망적 요소—붉은 십자가 근처 임시 연단 위 서 있는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려내고 있다.<sup>5)</sup> 스스로의 작품에 대해 “노동계급을 연민하거나 사회개혁자의 시선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 군중의 모습과 삭막하고 어두운 그 주거공간에서 은밀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뿐”이라 말한 라우리의 말대로 그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설적이고 복잡다단한 ‘군중 속의 고독’을 은밀한 아름다움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을 통해서 걸으로는 번영했으나 안으로는 많은 사회적 문제로 끓어오르던 모순적 시기를 라우리가 그림 한 장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sup>6)</sup> 🍵

**주석**

1. Fraser, D. (1973). The evolution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a history of social policy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Springer.
2. Lowry, L. S. (1987). LS Lowry, M. Leber, & J. Sandling (Eds.), Phaidon.
3. 이유리, (2016). 화가의 마지막 그림. 서해문집
4. Waters, C. (1999). Representations of everyday life: LS Lowry and the landscape of memory in postwar Britain, Representations, (65), 121-150.
5. T. J Clark & Anne M. Wagner (2013). Lowry and the painting of modern life. London: Tate publishing.
6. 이유리, (2016). 화가의 마지막 그림. 서해문집